

전남 시·읍 초교 학급당 25명으로 감축

장석웅 도교육감, 송년간담회서 '전남교육 2020' 제시 수업혁신·교육공동체 실현...5·18, 다문화교육 등 강화

전남도교육청이 교원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수업혁신'과 교육공동체 실현 등을 담은 '전남교육 2020' 청사진을 내놨다. 장석웅 도교육감은 23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원들의 전문역량을 키워 자발성과 열정을 불어넣고 수업혁신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산적한 전남교육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조직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남교육연구원을 통

해 교직원에게 단계 별 연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미래교육 관리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혁신리더 과정을 신설해 현장의 리더로서 자질과 역량을 함양토록 할 계획이다.

장 교육감은 이어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 중심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수업혁신에 매진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배움이 더딘 학생에 대한 집중 지도가 가능하도록 시·읍 지역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로 단계적 감축기로 했다. 또, 내년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지원을 강화하고,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전남과학교육원에 SW 교육 기능을 추가해 창의·융합교육원으로 확대 개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두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교육참여위원회, 학부모 네트워크 등 민·관 교육거버넌스 운영 내실화 ▲자주제와 협치체계 강화 등을 내놨다.

장 교육감은 또, 2020년 5·18민주화운

동 40주년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지원센터를 22개 전 시·군 교육지원청에 구축해 학교지원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문화 학생 1만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교육 강화, 농어촌 작은학교·원도심학교·섬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확대,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충도 2020년 주요 실천과제로 내세웠다.

한편 장 교육감은 올해 성과로 ▲10개 학교지원센터 시범 구축 ▲전문적학습공동체 1천811개 구성 지원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 510팀 지원 ▲4개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구축 운영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현 등을 꼽았다. /최권범기자

북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선도' 광주시 유일 노동부 장관상 수상

광주 북구는 23일 "고용노동부가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우수자치단체를 발굴해 포상했으며, 북구는 ▲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적정성 ▲노사 상생강화 사업 우수성 등 4개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으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일자리창출과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협의체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노사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불이냐면 이렇게 대피해요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초기대응 화재 소방훈련'이 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실시됐다. 이날 북구청 주관으로 진행된 겨울철 화재 대비 재난안전 훈련에서 아이들이 안전총괄과 직원들의 안내로 신속히 대피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광주·전남 일부 고교시험 공정성 논란

시민단체, 특정반만 힌트·문제집 베끼기 등 지적

광주·전남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내 시험문제를 특정 문제집에서 베끼거나 특정반 학생들에게만 힌트를 줘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모 고등학교의 경우 생명과학 교사 A씨가 배정 절반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한 가운데 시중에 나오는 특정 문제집에서 시험문제를 그대로 베끼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시 문제집 숫자를 응용하는 수준이었으나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대다수 문제를 그대로 베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챈 일부 학생들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고득점을 쟁취하고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학교 측은 결국 2학기 기말 시험 종료 후 앞서 치른 세 번의 시험에 대해 모두 재시험을 보기로 결정했다.

전남 모 여고에서는 한국사 교사 B씨가 특정반 학생에게만 시험 힌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전 1학년 6-10반 학생들에게만 사술형·객관식 문제 구분하지 않고 힌트를 줬고 같은 학년 1-5반 학생은 시험 직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학생들은 또 다른 한국사 교사 C씨에게도 문제를 제기했다. C씨는 "힌트제공 행위는 옳지 않다"는 입장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도 교육청은 문

제가 제기된 두 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학업관리지침에 따른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내신 완전질 대평가 등 평가 혁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교 재시험은 2017년 2천539건에서 2018년 1천880건으로 줄었지만, 2019년에는 1학기 만에 2천2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각각 150건과 70건에 이어 올 1학기에는 광주 122건, 전남 100건에 달했다. 한 학기 만에 지난해 연간 재시험 건수를 넘어섰다. /김동수기자

오늘의 날씨

| 지역 | 날씨 | 최저/최고기온 |
|----|----|---------|
| 인천 | ☀ | -3/6 |
| 서울 | ☀ | -3/7 |
| 대전 | ☁ | -3/9 |
| 전주 | ☁ | -2/10 |
| 광주 | ☁ | 0/10 |
| 제주 | ☁ | -1/10 |
| 춘천 | ☀ | 4/5 |
| 강릉 | ☀ | 1/10 |
| 목포 | ☁ | 0/9 |
| 여수 | ☁ | 3/11 |
| 부산 | ☁ | 3/13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감기 조심하세요)
- 빨래 60 (실내 건조 좋아요)
- 세차 60 (급하지 않으면 마루세요)
- 운동 80 (실내운동 즐겨요)

| 지역 | 강수확률(%) | 지역 | 만조 | 간조 |
|----|---------|----|-------|-------|
| 광주 | 20-0 | 목포 | 00:05 | 05:34 |
| 목포 | 20-20 | 순천 | 12:55 | 18:18 |
| 순천 | 20-0 | 여수 | 07:57 | 01:11 |
| 여수 | 20-0 | | 19:54 | 13:58 |

| 지역 | 남해 남부 (동향/파고) | 남해 서부 (동향/파고) |
|----|--|---|
| 오전 | 앞바다 ☁ 북-북동/0.5-1.0m 면바다 ☁ 북-북동/0.5-1.5m | 오전 앞바다 ☁ 북-북동/0.5-0.5m 면바다 ☁ 북-북동/1.0-1.5m |
| 오후 | 앞바다 ☀ 북-북동/0.5-0.5m 면바다 ☀ 북-북동/0.5-1.5m | 오후 앞바다 ☀ 북-북동/0.5-0.5m 면바다 ☀ 북-북동/1.0-1.5m |

| 주간날씨 | 전라(광주) | 서울경기(서울) | 강원영동(강릉) | 충청(대전) | 경상(대구) | 제주(제주) |
|---------|----------|----------|----------|----------|-----------|-----------|
| 12월 25수 | ☁ (0/11) | ☁ (-2/6) | ☁ (3/11) | ☁ (-3/8) | ☁ (-1/11) | ☁ (9/14) |
| 26/목 | ☁ (4/6) | ☁ (-1/4) | ☁ (3/8) | ☁ (1/5) | ☁ (2/7) | ☁ (11/12) |
| 27/금 | ☁ (0/6) | ☀ (-5/3) | ☁ (0/7) | ☀ (-3/6) | ☀ (-1/6) | ☁ (6/8) |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려울 듯..광주·전남 비

올해도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크리스마사이브인 24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고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으며 성탄절인 25일 우리나라 남쪽을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24일 아침 최저기온 -4, 낮 최고기온 12도, 25일 아침 최저기온 3도, 낮 최고기온 14도 분포를 보이겠다.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26일 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올해 12월 들어 눈 내린 날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눈이 내린 날이 이틀에 머물러 최근 20년 평균 9.5일의 21% 수준에 머물렀다. 기상청은 1월 중순까지 지금과 비슷한 기압계가 유지해 눈보다는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수기자

남구, 재난안전 분야 등 각종 평가서 '두각'

광주 남구가 재난안전 분야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명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중앙정부 및 광주시 주관 평가에서 연달아 최우수 및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중앙 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지원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45곳과 지방자치단체 245곳, 공공기관 64곳 등 총 465 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남구는 올 한해 재난지원 관리 분야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각종 훈련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남구는 광주시 주관으로 진행된 '2019 자치구 풍수해 보험사업 운영 평가'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둬 최우수 기관을 거머쥐었다. /김동수기자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작은 소리 에드워키 기올이는

고흥군의회

GOHEUNG-GUN COUNCIL